부르짖어 얻는 폐허의 미학

(예레미야 33:1~26)

1.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10-1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 떼를 눕게 할 것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부르짖어 얻는 폐허의 미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부르짖어 얻는 폐허의 미학'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저는 직접 이발을 합니다. 그래도 머리 뒷부분만큼은 집 사람이 깎아 줍니다. 물론 전에는 헤어숍을 다녔습니다. 머리를 깎으러 가면 기다리면서 신문이나 잡지를 읽었는데 대부분이 여성 잡지였습니다. 대충 광고 그림만 보는데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로 디자인 한 옷을 입은 모델이 폐허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왜 폐허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을지 그 의도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사실 폐허는 보기에 좋지 않은 곳입니다. 역사적인 유물로써의 가치 때문에 소중히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멋지게 보이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모델이 폐허에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또 특이한 점은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폐허임에도 불구하고 사진 자체는 전혀 어색함이나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외면하고 싶을 만큼 황폐함으로 가득한 곳이 폐허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마음을 둘 수 있는 가치로써 모델이 입은 옷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폐허의 영향을 받아서 옷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까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런 복잡한 생각 없이 작가의 직감으로 과감한 시도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폐허의 미학’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폐허에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고 의도적으로 추구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폐허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건물이나 성 따위가 파괴되어 황폐하게 된 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황폐함을 담고 있는 장소가 폐허입니다. 그렇다면 황폐함이란 무엇일까요? “집이나 토지나 삼림 따위가 거칠어져 못쓰게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허나 황폐함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약간의 부족감이 느껴집니다. 건물이나 성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다 황폐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911테러로 인해 무너진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자리에는 다시 Freedom Tower가 세워지고 대형 날개 모양의 아름다운 조형물과 함께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건물이 파괴되었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향한다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폐허’라는 말의 정의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건물이나 성 따위가 파괴되어 버려짐으로써 황폐하게 된 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려지다’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의미가 보다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파괴되지 않은 건물이나 성일지라도 버려지면 황폐하게 됩니다. ‘황폐함’이라는 말도 ‘집이나 토지나 삼림 따위가 버려짐으로써 거칠어져 못쓰게 됨’이라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입니다. 버려짐으로써 돌봄이 없고 마음 씀이 사라지면 폐허가 되고 황폐함이 생겨납니다.
폐허는 이렇듯 마음 씀이 없고 사람들의 의식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황폐함을 담은 폐허에도 미학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좋아서 의도적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창조적인 건설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폐허 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폐허를 추구하고 이루는 방법으로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황폐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라도 삶을 폐허로 만들자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라니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날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날마다 놀랍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함께 할 때에도 이런 의미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새삼스러운 본문이 있는가하면, 너무 눈에 익은 본문임에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 놀랄 때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나 건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삶을 폐허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은 앞장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년 전인 BC.587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전체를 점령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바벨론의 침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다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반국가사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시위대 뜰에 있던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에서부터 예레미야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계속 나왔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다시 반복되고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몇 번이고 읽다보면 조금 특이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후의 상황을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민들에게 진노하셨다고 해도 유다 왕국을 폐허로 만드시는 것을 좋아하셨다는 말은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선민들의 터전이 멸망을 당해서 파괴되고 폐허가 되었는데 민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의욕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과도하다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의욕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의욕을 표현하십니다.

마치 양팔의 소매를 걷어붙이시면서 '자! 이제 한 번 일을 해 볼까?'라고 선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의욕이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상하고도 어색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변덕이 심하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또 4~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라고 하는 의미는 당시에 유다는 바벨론과 싸우기 위한 무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과 왕궁을 세울 때 썼던 나무나 돌까지도 다 무기로 만들어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몸부림치는 유다 백성들을 철저히 외면하시고 깡그리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서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라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9절에서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라고 하시며 이방인들이 선민들의 회복을 두려워하게 되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5절까지는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던 유다 백성을 깡그리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복을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도 않았기에 회복보다는 승리가 간절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급하기 그지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12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안도 없이 만드시고 성취하시려는 의욕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의욕이 드러날 때가 바로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폐허를 너무 좋아하셔서 선민의 터전이 폐허가 된 것을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과도하게 반가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폐허에 즐거움의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는 장소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은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폐허가 사람의 의식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쩔 수 없이 크고 은밀한 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폐함으로 가득 찬 폐허에 대해 의욕을 보이시고, 폐허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 찬 곳으로 만드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선민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멀쩡하게 나라가 존재하던 시절일지라도 선민은 하나님께 황폐함을 제공해드렸어야 했습니다.
앞서 폐허와 황폐함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버려짐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집이나 성이 파괴되어 황폐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어 버려짐으로써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계속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지기에 폐허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버려져서 돌보지 않는다면 비록 파괴되지 않았을지라도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버려진 폐허에 대해서 강렬한 의욕을 보이십니다. 그 폐허의 자리가 반드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민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자리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욕을 방해해

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으로부터 삶이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이 마음에서 버려져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듯이, 아내 사라를 잃을 것을 각오하고 고향을 떠났듯이 마음에서 아내도 자녀도 폐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서 버려진 폐허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팔을 걷어붙이시고 즐거움의 자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삶에 대해 의욕을 보였습니다. 결코 자신의 삶을 폐허로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폐허와 같은 상태로부터의 창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되어 질서가 만들어지고 결실이 맺혀지고 광명이 있게 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욕에 방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마음에서 삶의 형편을 계속 버림으로써 폐허로 취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창조를 해나가셨던 것처럼 버림받아 폐허로 취급 받는 삶의 환경들에 의욕을 보이시며 창조를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선민들은 삶의 자리를 어떻게 폐허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2~3절에 나타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플래카드로 걸려있지 않은 기도원이 없을 정도입니다. 교회에서 연초에 표어를 정하려 할 때에도 이 구절이 항상 언급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은밀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이루셔야 할 일을 이미 내가 다 구상을 해놓습니다. 사업의 흑자가 10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은밀하기는커녕 노골적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큰일을 이루시리라고 말씀의 의미를 곡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지시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레미야가 놓였던 상황을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있었고 일 년 후에 선민의 나라인 조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속이 썩어 문드러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앞서 본 29장에서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12~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동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진멸당할 것과 그 참혹한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마음에 떠올리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상황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무겁게 사로잡고 있었고, 왕과 백성들은 왕궁과 집을 허물어 무기를 만들 정도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칙칙하게 뒤덮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마치 로켓이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 우주로 빠져나가듯이 부르짖음을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에서 삶의 모든 위기상황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라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도록 문제들을 떨쳐내라는 것이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것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고, 제일 크게 여기고, 제일 우선적인 현실로 여기는 상태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더는 마음이 땅에 묶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오직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땅은 마음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져서 폐허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동안 삶은 마음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지고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십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버려져 폐허 취급 받던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는 곳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의욕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을 하나님께 보낸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삶에서도 이 부르짖음이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부르짖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고 붙잡음으로써 부르짖음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마음에서 삶을 폐허로 만들고 폐허로 취급하게 합니다. 그리고 폐허로 취급받는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용솟음치는 의욕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제안한 적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통해서 삶을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가 남거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하지 못했다고 여겨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너무 많은 의욕을 부리고 그 의욕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해에 우리의 과제는 일 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끊임없이 폐허 취급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음

에서 삶을 폐허 취급하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붙잡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온 마음을 다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며 삶을 폐허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르침이나 교훈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욕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폐허로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예레미야에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내 마음을 빼앗아 포로로 만들려고 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라고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폐허 취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신 것처럼, 그 황폐한 곳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소리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절대로 우리의 의욕이 하나님의 의욕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기 위해 땅에서는 마음을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삶을 폐허 취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버려진 삶이라는 폐허가 아름다운 이유는 창조주이시며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의욕이 방해 받지 않고 다 표현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붙잡는 부르짖음을 통하여 삶의 구석구석이 다 버려져서 폐허 취급을 받게 하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버려진 모든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욕 속 계획과 구상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